

여수 거문도 대형 여객선 투입 놓고 갈등

주민 “특하면 결항...2천t급 운항으로 결항률 낮춰달라”
해수청 “접안시설에만 450억원 소요...장기적 접근 필요”

여수 거문도 주민들이 여수~거문항로에 대형 카페리 여객선 투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주무 기관인 해수청은 2000t급 대형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접안시설을 설치하려면 수 백 억원이 소요된다고 부정적이어서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거문도 주민 100여명은 지난 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형 고속 카페리 여객선 투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수~거문 항로는 27년 된 노후 선박의 운항과 지난해에는 두 번씩이나 장기 운항 중단에, 잦은 고장으로 결항이 빈번해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현재 운항 중인 여객선은 2시간

20분이 걸리는 데다 웬만한 파고와 풍속에도 운항이 통제돼 지난 4월 경우 결항률이 46%나 될 지경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0t급 대형고속 카페리 여객선이 투입되면, 여객 정원 385명, 화물차량과 승용차를 포함 56대의 차량 화물을 적재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고, 운항시간도 1시간 20분으로 현재보다 1시간 이상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며 “열악한 교통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운항중인 선령 12년의 2000t급 대형 카페리 고속여객선을 투입하려는 데, 해수청이 납득 안되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반면, 해수청은 기항지마다 대형 접안시설을 설

치하려면 450억원이 소요돼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여수와 거문도에만 접안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기항지마다 150억원이 소요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만 5년이 걸린다”며 “고흥 녹동항이나 장흥 노력항도 수 백 억원을 들여 접안시설을 만들었지만, 대형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0t급 여객선이 운항 중인 인천~백령 항로도 지난해 결항률이 49.7%에 달했다”며 “2000t급 여객선이 거문항로에 투입돼도 결항률을 낮추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수~거문 항로에는 여객선사 2곳이 300t급 여객선 2척을 운항하고 있고, 기상 악화와 선박 고장으로 결항이 잦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허석(오른쪽) 순천시장과 허유인 순천시회의의장이 평화정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한반도 평화정원 개장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평화정원이 개장했다.
202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조직위는 힐링과 치유의 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에 남한과 북한을 잇는 평화통일의 염원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 시민의 염원을 담아 한반도 평화정원을 조성했다.
한반도 평화정원은 순천만국가정원 동쪽 나들 숲 일원에 1만㎡ 규모로 국비 포함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였다.
평화정원에는 2018년 남북정상 역사의 판문점 회담으로 세계 언론과 이목이 쏠렸던 도보다

리, JSA(공동경비구역), 휴전선 철책, 평화의 시계, 이야기 벽이 재현됐다.
여순항쟁 유족회 등은 평화정원 개장식에 참석해 합동 기념사와 평화에 대한 향기가 널리 퍼지길 바라는 메시지를 식재했다. 또 평화의 염원을 담아 종이 비행기를 한 마음으로 날렸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이 지향하는 평화는 마음의 평화에서 출발해 궁극적으로 생태계 평화”라며 “한반도 평화정원이 순천이 지향하는 평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꽃 심고 매트 깔고...광양 배알도 ‘전기 좋은 섬’ 변신

안내판 설치후 이달 개장
내달 해상 보도교 개통
4개 집라인 올해말까지 설치

광양시의 아름다운 섬 ‘배알도’ 전기 좋은 섬으로 변모한다.
광양시는 배알도를 낭만이 흐르는 섬 정원으로 조성하고,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배알도에 전선을 깔아 호안을 정비하고, 접근이 어려웠던 구간은 나무데크로 연결해 섬 전체를 걸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보행용 야자 매트를 깔고 작약, 수국 등 계절 따라 피어나는 화초류를 심어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섬 정원을 완성했다.
아기자기한 꽃밭이 있는 섬 앞마당에는 ‘배알도’라는 빨간 명칭조형물을 세워 초록 잔디와 조화를 이루며, 군데군데 휴식용 의자를 놓아 여백 있는 섬터로 변모시켰다.
시는 관광객들을 위한 안전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마무리를 거쳐 7월 중 공식 개방할 예정이다.
8월에는 ‘배알도-망덕포구’ 현수교식 해상보도교를 개통하고, 망덕산-배알도 근린공원을 있는 4개 집라인도 올해 안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박순기 광양시 관광과장은 “광양 유일의 섬으로 남은 배알도는 해상보도교를 통해 쉽게 닿을 수 있는 바다 위 정원으로, 탁 트인 바다를 조망하며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낭만 섬터다”며 “망덕포구를 잇는 현수교식 해상보도교와 집라인, 모노레일 등을 조속히 완공해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의 유일한 섬으로 남은 배알도. 뱀섬이라고 불렸던 배알도는 태인동 가장 북쪽이자 섬진강 하구에 있는 0.8ha 높이 25m의 바위섬으로, 망덕산의 천자를 배알하는 천자봉조혈의 명당에서 명칭이 유래됐다. <광양시 제공>

고흥군, 지난해 귀농인 유입 전남 1위

2년 10개월간 3057가구 전입

고흥군을 찾는 귀농 인구가 해마다 늘면서 고흥반도가 귀농인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고흥군의 귀농인 수가 지난해 180명으로 전남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168명, 2019년 176명이어 귀농인이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달 24일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 발표한 귀농귀촌인 통계자료에서도 고흥의 귀농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은 귀농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귀농귀촌 1번지’,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 고흥’이라는 명성이 생겨났다.

실제로 고흥군은 민선 7기에 들어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했다.
고흥사랑에(愛) 청년유턴·아이행복·귀향귀촌 3대 전략 50개 추진과제를 담은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 10개월 동안 3057가구 4245명의 인구가 고흥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봤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군은 지난 한 해 귀농·귀인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한 곳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민선 7기 공약사항인 귀향귀촌 3000호 달성이 한층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보성군 백신접종 완료 주민 2만원 상품권

보성군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주민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보성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지급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치고 이달부터 1인당 2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성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지원 제4항에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을 제고를 위해 접종 완료 군민에게 보성사랑상품권, 기념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급되는 이번 인센티브는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접종 상품권 지급대상 인원은 보성군에 주소를 둔 3만1000여 명으로 소요예산은 6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보성군은 접종률 80%를 목표로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3분기 일반 성인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보성=김용복 기자 kyb@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